



##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 담배 성분 및 가격인상 관련 의혹보도, 정정 및 반론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KT&G가 판매하는 담배에 암모니아 성분이 첨가되었고 담배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KT&G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T&G는 암모니아 성분을 첨가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담배가격은 정부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제조업체가 가격 인상을 위해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제 사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 촬영 목적을 속인 인터뷰 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B방송사는 알루미늄 포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인터뷰와 함께 알루미늄 포일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알루미늄 포일의 제조과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촬영한다고 속이고 인터뷰를 해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번 달에는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대립되는 입장을 다룬 정기세미나 기사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인권침해 역시 쉬워지는 현 세태에서 초상권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범죄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초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지)
- ‘불편하고 귀찮은 캠핑, 그래도 떠나는 이유’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캠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인거 같아요. 지친 심신을 위해, 가족들과의 추억을 위해, 업무와 일에서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소통하며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캠핑의 묘미가 아닌가 싶네요. (양성규)
- 판례토크 ‘우리에게 범인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는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에게도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분별한 범죄자의 신원공개가 범죄자의 가족들은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범행을 되풀이 할 경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원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범들은 출소 후에도 추가범죄를 일으키는데, 이런 범죄자들에게 인권보호를 운운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응석)